



각국별 농향

유럽

금년 닭고기 수출 다시 회복세

미농무성(USDA) 발표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의 지난해 닭고기 생산량은 2002년도 595만톤 보다 낮은 585만톤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네덜란드의 고병원성기금인플루엔자의 발생과 여름철 혹서가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EU전체의 절반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는 3개국의 생산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닭고기 생산량은 네덜란드의 인플루엔자로부터의 해방, 독일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한 590만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면 가맹국중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3년도 닭고기 수입량 또한 2002년 40만톤 보다 20% 증가한 48만톤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은 위생문제에 따른 태국수입의 금지로 40만톤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수출은 네덜란드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002년도 85만톤이던 것이 2003년에는 70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수출량은 80만톤으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USDA)

러시아

식육생산 증가, 소비는 감소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가금육과 적색육(소고기, 양고기 등)의 생산량이 늘면서 식육부분의 연평균 성장율이 5%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량의 1/3이 수입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가금육은 아직도 50% 이상을 수입육이 차지하고 있다. 2003년도 식육생산량은 2002년의 98만8천톤보다 많은 109만톤을 보였으며, 이는 2000년 보다 20%가 증가한 것이다. 2003년도 가금육 생산을 보면 2002년도 보다 무려 15%나 증가한 63만톤에 달했다. 소, 돼지는 물론 가금육 수입량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가금소비량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도 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해 식육수입할당제의 도입에 따른 시장공급량이 부족했고, 또한 가격이 급등(40%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저소

득층은 65~70%가 부분육 닭고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鶏の研究)

**중 동**

**양계산물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

중동의 양계산업이 육계의 경우 90%이상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종교적인 식생활 문화의 지배를 받는 중동 대부분의 나라는 닭고기와 계란이 단백질 공급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생산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EU에서 주로 수출을 주도해 왔으나 양계산업이 발전하면서 중동의 대부분 국가는 자급자족 형태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입도 싸고 손쉬운 가까운 지역에서 수입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미국과 EU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들면서는 수입선이 보다 값싼 브라질산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P)

**아시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확산**

아시아지역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베트남, 태국,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까지 발병양상을 보이면서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태국이 이미 지난달 23일 현재 16개주로 HPAI가 확산된 가운데 태국에서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백신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EU에서는 태국정부가 백신을 사용할 경우 태국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태국 정부에서는 진퇴양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HPAI 발병이 없었던 말레이시아 역시 긴급 경계령을 내리는 등 가금육에 대한 일체 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한 달간 태국 전역에서는 12만수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으며, 태국 정부는 사육 가금류의 10% 이상이 특별한 이유없이 폐사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를 즉각 살처분토록 지시해 놓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9개성에서 약 5만수 이상의 닭을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

**브라질**

**닭고기 등 수출호조로 상반기 수출입 사상 최대기록**

브라질의 금년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31% 증가한 443억불을, 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한 283억불을 기록, 무역수지는 150억불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닭고기 등 수출물량 증가와 철광석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닭고기는 일곱 번째로 수출량이 많은 품목으로 상반기 12억불(1조4천억)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 브라질의 10대 수출품목을 보면 ① 대두(30억불), ② 철광석(21억불), ③ 대두박(17억불), ④ 항공기(16억불), ⑤ 자동차(15억불), ⑥ 원유(13억불), ⑦ 닭고기(12억불), ⑧ 반가공 철강재(9억불), ⑨ 강판(9억불), ⑩ 신발(9억불) 등으로 나타났다. (YTN)